

보도자료

(총 4매)



동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메일 animal@animals.or.kr / 전화 (02)2292-6337 / 팩스 02)2292-6339

· 발송일자 : 2012년 5월 30일(수요일)

· 담당 : 김진영(010-3221-2465)

· 2011년 5월 31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산유축진제! 국내에서 규제없이 사용되고 판매된다?

산유축진제 사용으로 병들어가는 젖소들!

우유 유제품 등 아이들 밥상도 위기!

산유축진제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안전규제를 강화하라!

▷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10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폭우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시청 역 10번 출구)에서 진행합니다.

○ 동물자유연대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유전자 조작 우유의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우유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여되는 유전재조합 기술로 합성된 산유축진호르몬은 현재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미국에서도 산유축진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표기하도록 제한되어 시판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조차도 안전성 우려와 동물복지 문제 발생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유보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 산유축진 호르몬을 투여하면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젖소에게 유선염 및 절뚝거림의 발생, 생식능력의 저하, 난소낭종 빈도의 증가, 체온상승, 소화불량, 고창증, 설사, 식욕부진, 무릎관절팽창 등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량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2002년, USDA(미국 농무부)가 소 성장 호르몬 사용과 관련해 미국의 낙농업자들을 조사했을 때,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동물의 건강 때문이라고 답했다.

○ 뿐만 아니라 산유촉진제를 투여받은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가 인간에게 각종 암을 유발하며, 항생 내성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물의약품(유전자재조합 산유촉진제)를 사용한 제품 포장용기의 표시 규정도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산유촉진 호르몬제 사용 금지 및,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끝.

첨부 : <유전자 조작 우유, 규제를 촉구한다> 성명서

<기자회견 순서>

세계 우유의 날 기념

“유전자조작 우유, 규제를 촉구한다”

-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을 금지한 산유촉진 호르몬이 국내에서는 허용
- 산유촉진 호르몬(소 성장호르몬), 안전성 논란 및 동물건강 침해
-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동물용의약품, GMO표시제에서 제외되어 관리 필요

매년 6월 1일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 우유의 날’이다. 우유는 영유아,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꼭 필요한 완전식품으로 권장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유촉진 호르몬(소 성장호르몬)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용되어, 소비자들이 그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소 성장호르몬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대량생산된 인공 호르몬을 소에게 투여하여 산유량을 20% 정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산유촉진 호르몬의 안전성 논란과 체내 잔류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처럼 산유촉진 호르몬 사용을 찬성하는 나라에서는 인공 호르몬이 젖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과 동일하므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유촉진 호르몬이 체내에서 성장호르몬(IGF-1)의 수치를 높여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장호르몬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과 함께 섭취될 경우 위에서 100% 소화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한다는 사실도 연구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한다며 소 성장호르몬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 자체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산유촉진 호르몬의 사용은 젖소의 유선염, 질똥거림, 대사성질환, 생식능력 저하 등의 질

병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산유축진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은 질병에 동물들을 만성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젖소의 질병으로 인한 항생제 남용은 아이들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소 성장호르몬의 국내시장 규모는 43억원이다. 2004년 국내판매량의 30억원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정이다. 산유축진 호르몬을 생산하는 한국 엘란코는 그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LG생명과학은 2008년부터 국내판매는 외주에 맡기고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축산농 인터넷 카페는 산유축진 호르몬 투여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인터넷에서도 소성장호르몬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산유축진 호르몬의 경우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유는 학교의 급식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산유축진 호르몬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품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승인받지 못했다. 또한 미국간호협회, 소비자연맹, 사회적책임을위한사회, 푸드앤드워터워치 등 52개국에 걸쳐 460개 이상의 단체가 산유축진 호르몬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동물복지를 위해 내년에 시행될 수의사 처방제에 성장호르몬을 최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용 우유와 미국산 분유를 중심으로 소 성장호르몬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산유축진 호르몬을 금지하여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자유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다음을 요구한다.

- 1) 2013년 8월2일에 전격 시행될 수의사 처방제에 산유축진 호르몬을 최우선 적용하라.
- 2) 단계적으로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유축진 호르몬을 국내에서도 금지하라.
- 3) 정부는 학교 급식용 우유에 산유축진 호르몬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라.
- 4)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식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라.
- 5)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라.
- 6) 유제품 기업은 산유축진 호르몬의 사용 여부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만약 사용시 라벨에 표시하라.
- 7) 항생제와 호르몬제의 자가치료 및 예방용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라.

■ 프로그램

-발언 1

산유축진 호르몬의 건강 우려와 식품안전 문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발언 2

유전자식품과 동물용의약품 문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 3

급식용 우유를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

이선임 아이쿱생협 식품위원장 5분

-발언 4

산유축진 호르몬이 야기하는 동물복지 문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발언 5

우리의 요구